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8.27~28)

1.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 시행 및 한일 무역분쟁 관련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주요 언론은 일본이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고 보도(环球网, 中国新闻网, 新京报 등)¹⁾
- 또한 한국 외교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했음을 인용 보도
- 신화사(新华社)는 한일 양국이 더 이상 보복 조치가 아닌 건설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소하기 바라며, 자국 이익을 위해 양국 분쟁에 개입하는 제3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보도²⁾
- 복단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 郑继永 주임은 한일 양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일본은 계속해서 ‘경제제재’를 이어갈 것이고 한국은 계속해서 ‘안보’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
- * 이는 전자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일본 의존도가 높고, 북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한국의 의존도가 높으며, 미국은 아태지역에서의 전략을 위해 한일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
- 또한 미국이 한일 분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일본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, 한국정부에 한반도 문제에서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함이라고 분석
- 그러나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전략이 위협을 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일갈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격화된다면 조정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전망

1) 「日本今日正式将韩国踢出贸易“白名单”，韩外交部召日大使抗议」, 『环球网』(2019. 8. 28); 「韩政府召见日本大使 严正抗议将韩国移出“白名单”」, 『中国新闻网』(2019. 8. 28); 「日本正式将韩国移出贸易出口“白名单”」, 『新京报』(2019. 8. 28);

2) 「韩日争端难化解 韩国还有“后招”吗?」, 『新华社』(2019. 8. 27)

2.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에 따른 중국의 기회 요인

□ [시장 및 전문가 반응]

- 제일재경(第一财经)은 한일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분석을 보도³⁾
- 흥업증권(兴业证券)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기업의 생산이 줄어들면 중국의 징둥방(京东方), 티엔마(天马)의 OLED, Micron(美光)의 DRAM, 도시바, Western Digital의 낸드 플래쉬 등 공급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
 - *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 체인에서의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,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지역분업 구조의 재편을 가속화될 것임.
- 재부증권(财富证券)은 한일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신소재 분야에 대한 투자기회를 많아질 것으로 전망
- 중신증권(中信证券)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 조치가 단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및 LCD 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중국기업에게는 기회라고 언급하였고, 장기적으로 한국은 관련 소재의 생산능력을 향상시켜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분석
 - * 또한 불화수소산과 관련하여 글로벌 휴대폰 단말기업체들이 중국의 OLED업체를 예비 공급선으로 정하거나, 생산 일부를 중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
- 연신증권(联讯证券)은 한일 무역분쟁으로 전자용 불화수소산 관련 중국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생길 것으로 기대
- 한편 중국시장조사 업체인 CINNO의 반도체 분석가 杨文得는 한국기업이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 기

3) 「日韩贸易激战正酣, 中国供应链机会来了, 半导体迎来行业机遇」, 『第一财经』(2019. 8. 27)

업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⁴⁾

- 그러나 무역갈등으로 한국 제조업체들이 소재 관련 대체 공급선을 찾아야 할 필요성은 느꼈으며, 향후 공급선 변경을 위한 테스트에서 승인까지는 최소한 두 분기는 필요할 것으로 전망
- 한편 포토레지스트, 에칭가스, 저부가가치 제조공정 등은 중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대체할 수 있으나 고부가가치 제조공정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진적인 제조공정일수록 공급기업 교체 리스크가 크다고 언급

4) 「日韩贸易摩擦催生芯片设计股机会」, 『证券市场红周刊』(2019. 8. 27)